

월드컵 감동 다시 한번 “한솔제지”

지난해 여름, 대한민국 전체를 달궜던 월드컵 향연을 발판 삼아 2002년 10월에 설립된 한솔제지 본사 축구동호회(회장 김대진 차장, 회계정보팀) 35명 회원들은 요즘도 축구에 대한 열정에 푹 빠져 있다.

도시생활의 여건상 축구를 좋아하면서도 상대와 장소가 마땅치 않아 취미활동을 하지 못하던 사원들에게 이 동호회는 몸을 부대끼고 땀을 흘려 가며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감을 높여주는 매우 뜻깊은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루종일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보기 때문에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원들의 건강증진에는 이 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다는 게 회원들의 반응이다. 동호회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름을 높이고 있는 이기한 사원은 “우리 축구동호회는 다른 동호회와 달리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매주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사내 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계열사 대항전에 나가 우승컵을 안았으며 한솔제지 사업장 대항 축구대회에서도 준우승을 하는 등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고 자랑했다.



다른 어떤 동호회들보다도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이 축구동호회는 거의 매주 상대팀을 섭외, 경기를 치른다. 물론 여의치 않을 때는 자체 청백전을 갖는다.

그런데 이들의 경기시간은 매우 유동적이다. 전반전은 시간을 정해 놓지만 후반전은 대체적으로 일몰이 곧 경기마감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벌써 낮이 많이 짧아져 평일(매주 화요일)모임을 못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면 다시 주말로 모임시간을 옮겨야 하고 모임도 월 1~2회로 줄어들게 된다.

동호회 모든 행사비용의 50%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사옥 내 3~4개 계열사 대항전이 회사 주최로 반기 1회 개최되는 등 동호회 활동에 회사의 지원도 많다.

● **여사와 함께 혼성 축구단 결성(?)**

베컴을 능가하는 킥킹 능력으로 상대방 골키퍼를 굴러다니게 만드는 김선균 차장,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공과는 전혀 상관없이 운동장을 휘젓고 다니는 김대욱 주임, 유소년 축구선수 출신으로 가끔씩 선보이는 개인기로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게 하는 남상일 과장 등은 동호회의 스타플레이어로 손꼽힌다.

그 중에서도 동호회 얼굴마담이며 공항 조기축구회 부동의 스트라이커이자 살인미소의 소유자인 남상일 과장은 뛰어난 축구실력 이외에도 매 경기마다 색다른 유니폼으로 동호회원들을 재밌게 해주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유니폼을 입고 나타나는 해프닝을 연출, 회원들 모두 그의 능력(?)에 탄복했다고 한다.

한편, 한솔제지 축구동호회는 현재 남자 사원만의 모임이라는 한계를 벗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여자 사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축구동호회 서포터즈를 설립하거나 혼성축구단 구성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 **경기는 아쉽게 졌지만 우정 다져**

기자가 한솔제지 축구동호회를 방문한 8월 둘째 주 화요일에는 포항강관 서울사무소 팀과의 경기가 계획돼 있었다.

6시 퇴근 후 한솔제지 축구동호회원들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서운중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하니 포항강관팀은 벌써 도착해 연습을 하고 있었다. 다른 때보다 차가 많이 막혀서 몇몇 회원들을 조금 더 기다려야 했으며 10~20분간 준비운동을 하니 6시30분이 훌쩍 넘어섰다. 어느덧 7시에 다다르자 조금 급해진 양팀 주장들은 경기시작을 서둘렀다. 이날의 경기도 전반전은 25분이지만 후반전 종료는 어김없이 일몰시간이었다.

매우 맑은 날이었지만 전반전 시작 후 15분 정도 흐르자 운동장은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어느덧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선수들의 몸놀림은 더 좋아 보였다. 대기의 습도가 제법 많이 떨어졌고 기온도 그리 높지 않아 경기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일몰과 함께 끝난 이날 경기에서 한솔제지 축구동호회 팀은 아쉽게도 포항강관 팀에 3:6으로 패했지만 경기 후 양팀 선수들은 정정계 서로를 격려하며, 우정을 다졌다. 이러한 모습이 야말로 스포츠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조갑준 기자)